

고흥군,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타 지역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고흥군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49세(1977~2008년생) 청년 세대주이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와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이학수 옹기장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

보성군은 지난 6월 30일 전통 옹기 제작 기술을 계승해 온 이학수(李學洙, 1955년생, 전남 보성군) 옹기장이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최종 인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옹기장」은 질그릇과 유약을 입혀 구운 오지그릇을 만드는 전통 기술로,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와 함께 발전해 온 유산이다.

이번 인정은 전통 옹기 제작 기법을 충실히 계승하고 전승 활동에 헌신해 온 이학수 옹기장의 기량과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과다. 이학수 옹기장은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였던 고(故) 이옥동 선생의 아들로, 대를 이어 전통 옹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1990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1994년 이수자, 1995년 전승교육사로 활동했으며, 2013년에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받아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왔다.

/김윤성 기자

해남에서 만나다 땅끝순례문학관 특별기획전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시의 시대'로 불리는 1980년대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시의 시대, 1980 해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해남 출신 시인 김남주·고정희·김준태·황지우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의 문학적 흐름과 시대상을 돌아보고 해남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김준태·황지우 시인의 미공개 원자료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김준태 시인의 1980년대 육필원과 서신, 시작노트 등을 비롯해 그의 대표작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또한 서울대 문리대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황지우 시인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담아 연인에게 전한 메모도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사업 선정

진도군(군수 이재각)이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 주산지인 진도군의 김 산업 생태계 강화와 함께 대상지인 군내농공단지가 김 수출 중심지(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진도군의 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이 사업은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미래 전략산업이자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년 연속 선정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용산면 계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국·도비 18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면 계산마을은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에도 힘을 계획한다.

/김정근 기자

완도, 해조류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스마트 가공시설 지원 확대



완도군청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역 대표 산업인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해조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과 다시마, 미역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가공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노후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자동화 설비와 위생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해조류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해조류 산업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생산 기반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시설 운영 실태와 지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